

민법(친족상속법 제외)<선택>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제 1 문 ~ 제 3 문]

서울에 사는 A는 10월 초에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휴가계획을 세우고 전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온 친구에게 숙박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A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해운대에 있는 P호텔의 객실 하나를 전화로 예약하였다. 10월 초 휴가를 얻어 부산에 도착한 A는 짐가방을 호텔포터에게 건네고 프론트에서 이름을 밝히며 객실키를 요구하였으나, 호텔 종업원은 이미 모든 객실이 다른 사람들로 차 있어서 더 이상 빈 객실이 없다고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P호텔 측이 A를 위하여 객실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가 A가 도착하기 직전에 먼저 도착한 헐리우드 유명 영화배우와 함께 온 단체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빈 객실이 없게 된 것이었다. 이는 영화제 관계자인 C가 A의 예약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위의 단체손님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호텔 측에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른 것이었다. A는 하는 수 없이 P호텔 근처에 있는 동급의 M호텔로 이동하여 겨우 빈 객실을 잡았다. 그러나 당일 M호텔 객실료는 P호텔보다 2배 높은 가격이었다. M호텔의 객실을 잡은 뒤 A는 곧바로 P호텔 포터에게 달려가 짐가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포터는 자신이 호텔 안으로 짐가방을 운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짐가방이 P호텔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 1 문. 위 사례에서 A는 P호텔에 대하여 M호텔 투숙시 발생한 초과객실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13점)

제 2 문. A는 P호텔에 대하여 짐가방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2점)

제 3 문. A의 C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검토하십시오. (5점)

제 4 문. 甲은 성년인 아들 乙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인감도장 등을 맡기고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 그런데 乙은 친구 丙이 丁으로부터 5,000만원의 용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甲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아직 甲에게 반환하지 않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이 변제기에 丁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甲과 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10점)

제 5 문.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10점)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장

